

[보도자료] 배송기사 직고용한 쿠팡, 건강도 회사가 직접 챙긴다

2020. 11. 12.

- 쿠친, 암 등 중대질병 대비 종합건강보험, 가족 병원비까지 책임지는 실손보험 회사가 100% 지원
- 주 5일 52시간 근무는 기본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제공

2020.

11. 12. 서울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회의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핵심이슈로 떠오르자 이미 자체적으로 배송기사를 위한 건강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쿠팡이 주목받고 있다.

쿠팡의

배송기사인 쿠친들은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물론이고 사무직과 동일하게 내시경, 초음파검사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야간근무 배송직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신규로 입사하는 쿠친의 경우 입사 건강검진 시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한번 더 받는다. 추가 검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쿠팡이 지원한다. 배송기사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포함하는 단체 실손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가 필요한 이상증후가 발견되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이 전국의 배송캠프를 직접 찾아가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한다. 순회 건강상담은 추적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휴무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도 쿠팡의 직고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친은 주5일

52시간 근무는 물론

15일 연차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지입제 기사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인 유류비, 통신비 등도 지원된다.

또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공짜노동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분류업무를 위한 전담 인력도

4천400명을

따로 운영하는 등 배송기사의 건강과 복지에 힘쓰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휴무시간 확대와 건강검진 지원 정책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지적을 받는 택배업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쿠팡은 이런 정책에 맞춰 배송기사 건강검진 강화와 복지 증진 등 최고의 근로조건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호응하는 쿠팡 배송직원 정책

분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쿠팡이 시행 중인 정책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하여 한도내 작업 유도	주5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영업 차단을 통한 심야배송 제한 권고	주간, 야간 근로 구별 및 영업 차단을 통한 의무휴게시간 부여
	노사협의를 거쳐 주5일 작업 확산 유도	주5일 전면 실시 및 연차휴가 15일 부여로 연 130일 휴무
	분류작업 노사 의견 수렴 및 표준계약 반영 유도	4400명 분류전담인력 회사 비용으로 고용
건강보호 강화	택배기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 대리점주 부과	이미 회사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
	뇌심혈관질환 등 고위험군 심층진단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및 입사자 심혈관질환 진단 지원
	초고위험군 대상 지속적 전문가 상담	건강검진 추적대상자 전원에게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순회상담팀 지원
사회안전망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및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	배송직원 전원에게 산재보험 포함 4대보험 가입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